

같이 보기

: 전주국제영화제 참관기



길었던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전주국제영화제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는 동시대 영화 예술의 대안적 흐름과 독립 예술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모토로 하여 전주를 넘어선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업영화가 흥행하고 있는 현대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취향의 다양성', '새로운 영화 체험'이라는 목표에 맞게 혁신적인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화의 예술적, 기술적, 매체적 진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새로운 기대를 안고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된 영화제는 예전보다 활기찼다.

나의 대학 시절 5월은 전주국제영화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당시에 친구들과 영화제를 즐기고 상영작들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사실 영화제 상영작들은 상업영화가 아닌지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화제의 목표인 다양성과 새로운 영화 체험이라는 부분은 성공적이다. 상업영화의 정해진 결말, 또한 그에 맞는 해석들은 어쩌면 내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에 나를 맞추었던 부분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만났던 영화는 조금은 어려웠지만, 영화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 나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영화제에서도 역시 나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온 작품이 있다.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유빈과 건>이라는 강지효 감독의 작품이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 깊숙한 곳에 유빈과 건, 두 아이가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두 친구. 그들에게 건천은 최고의 집이자 놀이터나 그 마을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소개된 영화는 감독이 가진 하나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주 산속에서 15년 동안 동굴 생활을 한 40대 구조'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과연 그 40대는 정말 구조를 기다린 것일까? 아니면 동굴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궁금증이 이 영화의 제작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유빈에게는 물이 흐르지 않아 개천 고유의 모습을 간직한



건천 깊숙한 곳에 사는 건이라는 친구가 있다. 건이 살고 있는 곳 위로 도로, 차도가 생기는 개발이 진행되고 유빈 역시 제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두 친구는 제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유빈과 건>은 이러한 두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다수에게 좋은 상황으로 발전하기 위해 파괴되는 것이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지키고 싶은 공간이자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 또한 틀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많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비추어 본 전주는 익숙했지만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전주국제영화제의 메인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전주 객사의 영화의 거리. 평상시에는 상점이 즐비한 곳이지만 축제 기간만큼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별히 이번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팔복동에 위치한 '팔복문화예술공장'에서 '100 Films 100 Posters'라는 전시가 열렸다. 영화 포스터 전시 겸 이벤트로 상영작 중 100편의

영화를 선정해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각각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 내는 행사이다. 그동안 출장 건강검진으로 가서 보았던 팔복동에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카세트테이프 공장이었던 곳이 새롭게 탄생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된 공간에 자리한 100개의 포스터는 장관이었다. 또한, 팔복문화예술공장 앞으로 지나가는 철길을 따라 만개한 이팝나무는 봄에 핀 눈꽃처럼 너무나 아름다웠다. 영화의 거리에서 팔복문화예술공장까지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전주국제영화제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본다.

내가 만난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가웠으며, 간만에 5월의 전주를 만끽할 수 있었다. 올해의 전주국제영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2023년에는 많은 사람이 전주에 방문해 다양한 행사를 즐기고 상영작들을 통해 새로운 영화 체험을 하면서 전주를 넘어선 세계인의 축제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